9번째 재앙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서 이제는 모세에게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러 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대강(强代强)의 대결처럼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던 모세도 이제 오히려 매우 화가 나서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바로의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온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애굽의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 무사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애굽의 개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11:7).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집과 어린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2: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달력은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달력과 비교하면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의 달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첫 달이 되게 하신 달은 이전 유대인들의 달력에서는 7월에 해당하는 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예전의 달력과는 6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던 달력을 버리고 새로운 시간표를 따라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절기도 알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달 10일에는 가족 수대로 어린양을 준비하고, 14일에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이 들어 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두루 다니시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를 보고 넘어 갈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가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에 그 곳을 넘어 가셔서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며 멸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 백성과 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애굽을 떠나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원하는 곳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살았던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애굽에 올 때 70명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장정만 해도 육십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 떠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정확히 430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셔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 앞에 도착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병거를 갖추고 애굽의 잘 훈련된 병거와 마병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마병들이 쫓아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향해 원망을 말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14:16)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13-14).

일촉즉발의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조그마한 오차도 없었습니다. 거짓말같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지금은 바다가 갈라져 있는 현장에서 마른 땅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보고 자신들이 바다를 건너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이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내셨습니다. 애굽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들과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로 돌아 도망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모든 바로의 군대와 기병들과 병거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위협하며

쫓아 오던 서슬 퍼런 애굽의 군대가 한 순간에 힘없이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낸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가리켜 '이 물은 갈대 밭에 발목 정도 차는 수심이 낮은 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발목 정도 차는 물에 애굽의 군대, 그것도 잘 훈련된 기병과 병거가 모두 빠져 몰살 되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한국의 서해안 등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할 때 물이 빠지고 길이 생기는 현상을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등에서 생기는 이 현상은 물이 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이런 현상을 보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겠지'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바닷길이 생겼다' 또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서 걸어서 다닐 수 있다'고 말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자칫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폄훼하고 성경 말씀의 내용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많은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신 홍해를 우리는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롬6:18).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양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